



KOMSA MAGAZINE

한해인-인

해안선

2024 Winter Vol.60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CONTENTS

VOL.60



해안선 웹진 바로가기

어쩐지 잘 통하는 당신과 함께  
고요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고 싶네요  
*소통, Sea You Again!*



## 맑은 바다 씨

04

### 바다의 인사

부산의 바다에서  
전하는 인사

08

### 바다 옆 골목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4년 12월 3일(통권 60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이룸서길27(아름동)  
전 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http://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전한 콤사 씨



16

### 소통 콤사

여러분~ KOMSA  
소통 잘하는 것 좀 보세요♪

18

### KOMSA 줌인

KOMSA 제3기 해수호 기자단  
목포 현장 방문기

22

### 현장 속으로

부산지사

28

### 칭찬이 트렌드

칭찬을 나누며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로  
약속해요~♥

30

### 주인공 나야 나

목포운항관리센터  
정병찬 운항관리자

## 물인 문화 씨

34

### 어촌리 가다

신진도

40

### 바다 상식

짠! 짠! 짠! 짠!  
바다가 궁금해

42

### 어시장 나들이

부산 자갈치시장

46

### 싱싱한 식당

영도해녀촌

48

### KOMSA 뉴스

49  
KOMSA 네트워크

50

### 이벤트 안내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도시입니다. 영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어느 바다를 가도 낭만과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을 막론하고 부산을 찾곤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부산 바다만이 간직한 매력을 누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가 아쉽다면, 우리 다 함께 부산의 바다로 가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연말을 장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염없이 거닐며 생각을 정리해도 좋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을 거예요. 그 곁에는 나와 잘 통하는 누군가가 함께한다면 더 좋겠네요. 부산에서 그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나누며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영도에서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이들은 부산은 물론 해외 검사 일정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 잘 되는 동료들 덕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캠핑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피로가 잊혀진다고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고충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기에 소통하다 보면 힘이 난다고 해요. 그 힘을 원동력으로 부산의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처럼, 여러분도 여기서만큼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가 모두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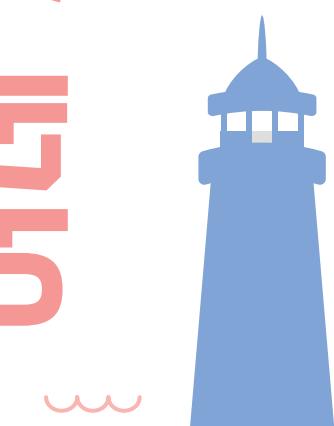
# 소리보는 여행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



살다 보면 좋았던 것들이 싫어질 때가 있다.  
반대로 싫었던 것들이 좋아질 때도 있다.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다.  
넓은 그 품이 편안해서일까.  
사계절 언제봐도 좋기만 하다.  
가끔은 원 없이 눈에 담고 싶어질 정도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사이를 헤매다가 만난  
흰여울문화마을의 바다도 그랬다.  
햇살이 드리운 덕분인지,  
오가는 사람들의 해사한 얼굴 덕분인지  
평온함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좋아  
한참을 바라봤다.



#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 흰 눈이 내리는 것처럼 예쁜 바다마을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에 자리한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이라는 말은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을 뜻한다. 흰여울문화마을이라는 이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영도 봉래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줄기가 빠르게 굽이쳐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흰 눈이 내리는 것 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흰여울문화마을은 햇살 가득 한 날씨 좋은 날에 찾으면, 바다가 유난히 빛나 더욱 운치가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송도를 마주 보고 있기도 하고, 송도만큼이나 바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제2의 송도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 피란민들의 애환을 시작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흰여울문화마을의 시작은 피란민들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피란민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이곳이 바다 끝 벼랑에 있었기에 '흰여울로 도망가면 찾지 못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그만큼 마을은 판잣집으로 가득해 복잡하고 험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고, 점점 폐가와 빈집이 늘어났다. 그러던 마을이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통장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이웃과 정을 나누는 마을'로 만들고자 이웃들과 국밥데이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전해져서였을까. 2011년, 영도구청은 마을의 빈집 3채를 지역 예술가의 작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하면서부터 마을은 활기를 띠었고, 낡은 골목길과 담벼락에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지면서 관광객들도 늘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5대 해안누리길에 흰여울길이 선정되면서 '부산 바닷가 근처 예쁜 마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낡은 골목길과 담벼락에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지면서  
관광객들도 늘었다.

##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시간 보내기!

골목골목 재미난 볼거리들이 많은 흰여울문화마을. 어디를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 ① 리사네 임화점
- ② 영화기록관
- ③ 에테로
- ④ 여울책장
- ⑤ 흰여울전망대
- ⑥ 흰여울해안터널



# 꽈! 여기 볼 거 천지빠까리다~!



1

## 리사네 잡화점

지역마다 특색 있는 소품 가게가 정말 많은데, 흰여울문화마을에도 저마다의 감성을 간직한 소품 가게가 몇 개 있다. 리사네 잡화점은 '온 세상 만물이 여기 다 모였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곳이다. 빨간색 벽돌외관이라 찾기도 쉽다. 이곳의 카테고리를 분류한다면, 레트로가 맞겠다.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키티 캐릭터부터 도라에몽, 페코짱 캐릭터 피규어와 인형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 전부 옛 모습을 간직해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분이다. 게다가 구석에는 이름 모를 골동품들과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던 성냥도 판다. 레트로한 성냥갑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 부산 영도구 흰여울길 129 1층

2

## 영화기록관

흰여울문화마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영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변호인>부터 <범죄와의 전쟁>, <첫사랑 사수 월기대회> 등 다양한 영화를 이곳에서 찍었다. 영화기록관은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촬영했던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곳이다. 영화 속 의상들을 입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영화기록관에서 판매하는 엽서/우표를 구매해 편지를 써보는 '느리게 가는 편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606



4

## 여울책장

흰여울문화마을과 잘 어울리는 동네 책방이자, 쉼터 같은 북카페다. 하얀 벽에 노란색 간판과 담벼락이 눈에 띈다. 담벼락 한편에 자리잡은 담쟁이넝쿨도 이곳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진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테이블이 인기지만, 실내에도 통창으로 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책들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간을 보내기 좋다.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는 팝빙수는 여울책장의 인기 메뉴다. 팥을 직접 삶아 우유 얼음과 함께 만들어 내는데 정성이 담겨서인지, 흰눈을 닮아서인지 겨울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 부산 영도구 흰여울길 381



3

## 에테르

전 층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가기 좋다. 게다가 2024 블루리본 서베이에 선정될 만큼 맛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시그니처는 랩스터 롤. 브라운 버터에 버무린 통 랩스터와 콜라비 라페를 곁들인 오픈샌드위치인데, 바닷가 마을과 잘 어울린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내열 머그잔을 이용해 음료를 내어주는 것도 인상적이다. 개인 텀블러 지참 고객에게는 음료를 최소 500원에서 많게는 20%의 금액까지 할인해 준다. 공간, 뷰, 맛,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까지 다 갖춘 카페여서 그런지 흰여울문화마을을 명소로 자리 잡았다.

📍 부산 영도구 철영로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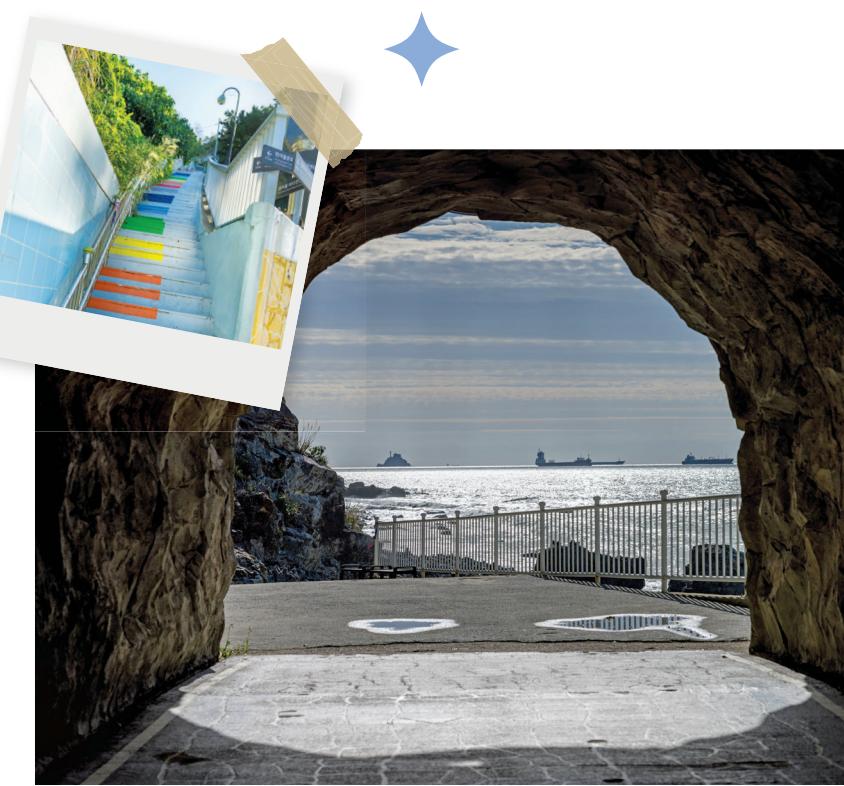


5

## 흰여울전망대

흰여울전망대는 흰여울문화마을의 대표 전망대다. 마을의 경치가 한눈에 보이고, 예쁜 포토존이 마련된 것이 특징. 거기에 쓰여 있는 '지금, 여기, 흰여울'이라는 문구가 바다와 어우러지니 더 감성적으로 다가온다. 여름에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더위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곳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맛을 수 있는데 느낌이 좋다. 조금만 내려가면 또 다른 포토존인 이송도전망대가 나온다. 여기서는 계단 틈 사이로 비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포인트다. 두 곳 모두 인생 사진을 건지기 좋은 데다가 서로 거리도 멀지 않으니 들러보는 것도 좋다.

• 부산 영도구 절영로 258



6

## 흰여울해안터널

절영해안책로를 따라 걷거나, 피아노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나오는 터널이다. 피아노계단 구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터널인데, 지금은 흰여울문화마을의 포토존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동굴 초입과 끝부분에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한 폭의 그림 같다. 조명으로 꾸며둔 포토존이 터널 안에도 있지만 윤슬이 매력적인 바다가 펼쳐지는 덕분에 터널 초입과 끝부분의 포토존이 인기다. 가파른 피아노 계단을 지나는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가볼 것!

•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210-38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과  
뉘어가는  
배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흰여울문화마을을 걸다 보면 선박들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선박들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선, 원양어선 등으로 맛을 내리고  
잠시 이곳에 머물다간다. 하루 평균 약 80척의 배들이 흰여울문화마을  
을 바다에 머물다간다고 해서 이곳을 배들의 주차장 '묘박지'라고 부른다.  
뉘어가는 배들과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이 흰여울문화마을의  
풍경을 더욱 운치 있게 한다. +

# 여러분~ KOMSA

소통  
잘하는  
것 좀  
보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소통하는 KOMSA의 활동을  
소개한다.



## 맛있는 소통이야기 도시락 콘서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 조직문화 개선 및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도시락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시락 콘서트에는 경영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본사 소속 부서장이 함께 자리해 MZ세대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공단의 MZ 직원들을 위한 대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Dynamic MZ'를 통해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눠봄으로써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밥 먹으면서 #맛있게 #소통해요



## 공감·소통 기반 조직 활성화 교육

인문·소양 강의를 통한 직원들의 견식을 넓히고, 업무를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직원과 23년 사내 강사 우수 지원자들에게 '김창옥의 토크 콘서트 시즌3'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토크 콘서트에 다녀온 직원들은 "우리나라 대표 소통전문가의 콘서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얻은 소통·공감 대화법을 활용해 선후배 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소통과 공감의 대화 #KOMSA의 조직문화로!

## KOMSA의 미래를 책임질 주니어보드 운영

공단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조직문화 역시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미래 경영 주체인 MZ세대 직원들의 잠재된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주니어보드를 운영 중이다. 23년에 출범한 KOMSA 주니어보드는 임원-직원, 본사-지사-운항관리센터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소통과 협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정례 회의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도 힘쓴다.

#수평적 조직문화 #창의적 발상 #혁신적 사고 #주니어보드가 간다

## 미래세대 소통화합 커뮤니케이션 교육

입사 5년 미만 실무자를 대상으로 '미래세대 소통화합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 본사부터 전국 각지의 지사, 운항관리센터에 근무 중인 미래세대 직원들은 함께 조를 이뤄 1박 2일간 단합을 다지고, 서로의 직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준석 이사장도 이 자리에 함께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과 #소통을 다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우수직장 인증을 획득했다. 사내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또한 본사뿐만 아니라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 파도소리 도서관을 개관해 지역 사회 독서 문화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마련해 직원 간 소통 및 창의력 증진의 기회를 확장할 것이다.



## 목포에 해수호 기자단이 떴다!

• KOMSA 제3기 해수호 기자단 목포 현장 방문기 •

지난 10월 31일, 해수호 기자단이 KOMSA 목포지사와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방문했다. 해수호 기자단은 신기한 것을 발견한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사와 운항관리센터 곳곳을 둘러봤다. 그 설렘 가득했던 현장을 소개한다.



## KOMSA MOKPO

목포운항관리센터는 목포항에서 출발해 내항 선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 선장 업무지도,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목포 바다 위에서 만난 해수호 기자단

서남권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KOMSA 목포지사와 목포운항관리센터. 6인의 해수호 기자단이 이들의 현장에 방문했다. 먼 거리지만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불철주야 노력 중인 KOMSA의 검사원들과 운항관리자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가장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포운항관리센터는 목포항에서 출발해 내항 선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 선장 업무지도,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수호 기자단은 운항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차도선 남신안농협1호에 탑승해 운항관리를 하는 모습을 견학하고,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조타실 등에 들어가 선박의 조작 원리와 점검 내용 등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시온 기자는 “예전에 차도선을 타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는 처음 들어와 본다”며 “배를 운항하는 조타실에 들어와 보니 실제로 배를 어떻게 운항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첨단 장비가 갖춰진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다음으로 기자단이 방문한 곳은 목포지사 옆에 있는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소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는 어선 등 중소형 선박이 편리하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중소선박 종합 안전관리센터로, 중소형선박의 정밀검사, 원격검사, 생애주기별 안전점검, 선박 종사자 및 대국민 해양 안전 체험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호 기자단은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를 돌아보고 “생각보다 더





## MINI INTERVIEW



오늘 투어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견학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양안전과 선박검사에 대해 자세하고 알차게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일반인은 가보지 못하는 선박 안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덕분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물류회사와 선사 중에 진로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해수호 기자단은 목포 현장을 돌아보며  
해양교통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SNS를 통해 바다의 안전을 위한 KOMSA의  
노력을 널리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스마트하게 선박검사가 이뤄지는구나!”라며 감탄했다. 또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2층에 자리한 해양안전문화체험관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 시간에는 KOMSA 김준석 이사장의 깜짝 방문도 있었다. 김준석 이사장은 목포를 찾은 해수호 기자단에게 “좋은 콘텐츠를 부탁한다”라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검사동으로 이동한 해수호 기자단은 건조 중인 ‘블루마린 호’를 대상으로 정밀검사하는 현장을 살폈다. 선박 정밀검사는 초음파 선체 두께 측정기, 바콜경도계, 절연저항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지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다. 해수호 기자단 중에 미래 선박검사원이 꿈이라는 한 학생은 검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검사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박검사원의 디테일한 설명으로 체험을 마친 학생은 “처음 이지만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 대미를 장식한 조선소 투어

기자단은 마지막으로 조선소에 방문했다. 조선소에서는 항만순찰선을 제작하고 있다. 기자단은 이 순간을 기록해 SNS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했다. 해수호 기자단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든 콘텐츠를 전 국민이 보게 될 생각을 하니까 설레면서도 사명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며 “KOMSA 목포 현장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평소 해양교통 분야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현장. 이들은 이번 목포 현장 방문을 통해 관심 분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경험을 원동력으로 한국해양교통산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해수호 기자단 활동 기간 동안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바다의 안전을 위한 공단의 숨은 노력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 영도구는 부산 해양의 중심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다양한 선박들이 영도를 오가고, 관계 기관과 조선소도 많다. 이는 선박검사 및 건조 범위가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사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부산지사의 새로운 도약



####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새롭게!

부산시 영도구 조선해양복합센터. 부산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기존에 있었던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대평동으로 이전해 안팎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사무실 이전으로 전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영도는 부산시 선박 수리 및 건조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유관기관, 조선소, 수리업체도 가까워 편의성이 높아졌겠죠. 직원 모두 만족하며 일하는 중입니다.” 만족감은 부산지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도 느끼고 있다. 전 사무실보다 접근성이 좋아 방문하기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조선소 가까이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찾아오기 좋고,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이렇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부산지사는 1,000톤 이상 유조선을 비롯한 여객선, 예인선, 부선은 물론 원양어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박검사를 진행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 부산지사는 이렇게 소통해요

부산지사에는 검사직, 연구직, 행정직 등 총 2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선박검사 업무를 기본으로 선박 상태 평가 기술용역, 예항력 시험 용역 등 선박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선박검사 업무도 맡고 있다.

“아마 전국 지사 중 해외 검사가 가장 많은 지사일 거예요. 일본, 우루과이, 남아공 등 다른 지사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해외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부산지사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은 단연 서로 돋는 마음과 배려가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해외 출장이 잦아 빈자리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렇기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주간 회의를 통해 업무 현안 사항, 점검 사항 등을 공유하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며 움직입니다.”

소통의 힘은 업무 외적인 순간에서도 발휘되는 중이다. 시간이 맞는 사람끼리 회식을 하면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함께 운동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며 취미를 공유하기도 한다. “우리 지사에는 지사 구성원 대부분이 소속된 ‘콤카’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출장이나 현장을 방문할 일이 많아 운전이 필수거든요. 이 동호회를 통해 자동차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다진 소통 능력은 고객을 대할 때도 드러난다. 지사 규모가 큰 만큼 분야별로 다양한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기적으로 고객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고객들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다.

#### 선박검사를 선도하는 유일무이한 지사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건 단연 안전이다. “검사 시작 전 5분가량 안전운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별로 사고 사례를 분석해 분석 자료를 선원 및 선주님들과 공유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최근에는 해양 경찰 측에서 요청한 도면 교육을 진행하며 선박 안전운항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검사원으로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가끔 민원인으로부터 시간을 막론하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기도 하지만, 부산지사 직원들은 해양도시 부산의 선박 안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책임감을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지사 특징을 살려 검사 현장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도 세웠다.

“부산지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어렵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 또한 함께 헤쳐 나갈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현장,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현장 만들어 나갑시다!” 다가오는 새해, 혹시 모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KOMSA 부산지사’의 이름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이뤄낼 이들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양한 선종과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지사장으로서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선후배,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 신뢰하고 도움을 주는 부산지사를 만들어갑시다!

- 백철호 지사장





칭찬을 나누며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로  
약속해요~♥

추운 날씨로 몸을 움츠리다가도  
동료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하나에  
사르르 녹게 되는 연말입니다.  
이번 겨울, KOMSA 식구들은  
동료들과 어떤 마음을 나눴을까요?  
동료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칭찬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이 칭찬의 힘이 KOMSA 전역에  
퍼져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To.  
목포지사  
박문주 주임

선박검사 접수 업무를 하실 때마다  
늘 웃는 얼굴로 선주님들을  
맞이해주시는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주임님의 미소 덕분에 선주님들이  
접수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나 긴장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임님의 미소와  
친절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늘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업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From.  
목포지사 박상협 주임

To.  
미래사업실  
김신영 주임

직장 생활하는 동안 처음으로  
직속 후임과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미래사업실에  
함께 있었던 10개월간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묵묵히 잘 따라와 준  
김신영 주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후배 직원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행복했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현재는 부서가  
변경되어 접점이 많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From.  
대외협력팀 임원영 주임

## Dear My Colleague

To.  
중부지사  
검사원님들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KOMSA의 모든 분을 칭찬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고동균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여러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R&D를 수행하는 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험과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오랜 국가R&D 수행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후배들이 업무적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마치 해결사처럼  
본인의 노하우와 해법을 공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업무,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등 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무심한 척하시며  
누구보다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From.  
해양모빌리티실  
고동균 과장

To.  
중부지사  
검사원님들

From.  
해양환경실 곽재혁 주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KOMSA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자료와 교육 덕분에  
몰랐던 부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  
참여한 다른 업계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KOMSA 아카데미가  
이번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되길 바라며 준비해 주신  
중부지사 검사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rom.  
세종선박기술 김현우 과장

KOMSA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제설계 접근 방식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검사원님들의 전문성과 열정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교육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준비해 주신  
중부지사 검사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From.  
주산선박설계 김정덕



정말 아직은..  
병아리이지만,



**ISTJ**

현실주의자



- 사실을 중시하는 믿음직한 성격
- 진솔하게 행동하는 편
-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함
- 화려한 삶이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일에 관심 없음
- 언제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찬란한 한국해양교통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포운항관리센터 정병찬 운항관리자

Q KOMSA에는 언제 입사하셨나요?

저는 올해 6월 KOMSA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운항관리자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된 정말 신입 중의 신입입니다.

Q 입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항해사로 3년간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젊은 지금 이 시기에 선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경험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 분야를 알아보다가 저의 경력과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도 보람 있을 것 같은 KOMSA 운항관리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운항관리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로 인해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이 있을 때 관련된 법령 또는 운항관리규정을 살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판단해서 출항 통제를 하거나 운항 허용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목포운항관리센터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목포운항관리센터는 KOMSA 운항관리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고 거의 모든 여객선의 종류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사항들도 많지만, 운항관리자로서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도 많아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좋죠. 열심히 옆에서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Q 입사 후 책임감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여객선 점검할 때 간혹 승객분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여객선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 배 타는 게 무서운데 점검 중인 구명조끼 입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럴 때 운항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자!

Q 운항관리자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 또는 재미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운항관리자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죠. 대신 한 달에 정해진 일수만큼 휴무를 갖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나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근무 환경을 잘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족스럽게 근무하는 중입니다.

Q 운항관리자로서 고충은 무엇인가요?

현재 근무 환경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고충을 꼽자면 언젠가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운항관리센터를 떠나 새로 적응도 해야 하고, 이사도 해야 하죠. 조금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Q 출근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목포운항관리센터는 아침 출근, 정상 근무, 연장 근무 등 다양한 근무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무 스케줄에 맞춰 모두 다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날의 날씨, 시정 상황 등을 보고 통제된 선박은 없는지, 오늘과 내일 운항에는 지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출항 전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출항 전 점검을 하고, 선장님과 점검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날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더욱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외에는 통신근무가 있는데요. 근무시간별로 지정된 통신근무를 수행하고 민원전화를 받고, 출항 전 점검을 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게 루틴 같아요. 목포운항관리센터가 정말 바쁘게 훌러가다 보니, 기본적인 업무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Q 운항관리직으로서 다른 직군에 궁금한 점이 있나요?

대부분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는 중이겠지만, 그만큼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군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Q 언젠가 만나게 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하하. 아직 저도 업무를 배워나가는 단계라서 조언하기는 설부른 것 같습니다. 다만, 운항관리규정과 화물 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운항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과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평소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자!'입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찜찜한 것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적 고충이나 실수가 있다면 혼자서 수습하려고 시간을 끌기보다 빠르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선배님들에게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덜 혼나는 길인 것 같거든요. ☺



생동감  
넘치는

# 신진도의 겨울



바람 끝이 찬 계절이 왔음에도  
어민들의 삶은 '잠시 멈춤'이 아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바다로 나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고된 뱃일을 견디며 누군가는  
쉬어간다는 계절을 살아간다.  
이들의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이 바다가 활기를 띠는  
것은 아닐는지.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신진도로 가서 그들의  
삶과 마주했다.

Sinjindo

## 신진대교, 신진도에 변화를!

태안 끝에 있는 신진도는 인구가 채 천 명도 되지 않는 작은 섬이다. ‘신진도(新津島)’라는 이름에는 ‘새 나루’라는 뜻이 담겨있다. 오래전, 육지 사람과 섬사람이 오고 가기 위해 나루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나루를 ‘새 나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진(新津)은 ‘새 나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지금은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나루보다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 1995년에 개통된 신진대교 덕분이다.

안흥에서 신진도를 잇는 신진대교가 생겨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말이면 낚시와 캠핑하러 온 외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먹을거리가 풍부해 제철 맞은 해산물을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었다. 이 모든 게 신진대교가 생긴 이후에 찾아온 변화다.

신진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태안반도의 최대 항구라 불렸던 안흥 외항이 제일 변화했다면, 생긴 후부터는 신진항을 태안반도의 최대 항구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안흥을 지나야 비로소 신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안흥과 신진도를 함께 관광하곤 한다고.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에 좋은 평을 얻기 위해 쌓았다는 안흥성과 다양한 해양유물을 전시해 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대표적인 안흥-신진도 관광코스다.

## 싱싱하고 다양한 어종이 있는 곳

신진대교를 지나으면 신진도의 모습이 보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신진항에 정박해 있고, 그 위에서 뱃일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안흥항이 역사가 깊지만,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큰 배가 드나들기 어려워 고깃배들이 점차 신진항으로 몰리고 있다. 하루에도 꽃게, 갈치,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실은 어선들이 몇 차례씩 드나들고, 인근에 자리한 수협공판장에서는 어민들이 잡아 온 활어 경매가 이루어진다. 시간대를 잘 맞춰 찾으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신선한 광경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의 수산물 직판장에서는 갓 잡아 온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겨울 무렵에 찾으면 가게마다 널려있는 조개류와 꽃게, 대하 등 태안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제철 어종들이 보인다. 이 수산물 이외에도 요즘 신진도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오징어다. 울릉도나 강원도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오징어가 신진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면서부터 이 지역의 명물로 떠올랐다고. 올해 8월에 제1회 신진도 오징어&수산물 축제를 열 정도였다고 하니 신진도를 찾았다면 맛보는 것도 좋겠다. 찾았던 때는 갑판 위나 가게 앞에서 오징어를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풍으로 건조해 맛이 좋은 건조 오징어 역시 인기 품목이라



*Sinjindo of winter*



신진대교를 지나으면 신진도의 모습이 보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신진항에 정박해 있고, 그 위에서 뱃일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서울과도 거리가 가깝고 조용한 데다가  
바다 경관이 아름답고, 먹을거리가  
풍부해 도시인들이 휴식처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고 한다. 직거래와 축제, 관광객 덕분에 신진도 어민들은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 생동감 넘치는 어촌에서 쉬어 가기

넙치, 우럭, 광어, 노래미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서인지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특히 신진대교 아래나 방파제는 신진도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 포인트다. 차에 한가득 낚시 장비를 실고 와 하루 이를 묵으며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배 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선착장에서 안내받고 난 후 바다로 향하는 작은 배 위에서 낚시가 가능한데, 푸른 바다 위에서 느끼는 낚시의 손맛을 못 잊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낚시꾼들도 많다.

신진도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방파제에 올라 빨간 등대까지 걸어 보자. 몇 해 전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마도의 멋진 해안 절벽, 망망대해에 자리한 크고 작은 섬, 신진도 어촌의 풍경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인들이 휴식처로 이곳을 택한 이유가 느껴진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섬, 신진도. 추위마저 잊고 생동감 넘치게 하루를 살아가는 어민들의 모습에서 다가오는 새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자는 다짐을 해본다. ●



#### 여행 정보



#### 신진도와 함께 즐겨요!

##### 하나. 용신어촌체험마을

작은 어촌마을인데,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의 갯벌은 모래와 뱀이 합쳐져 단단해 사람이 깊게 빠지지 않는다. 조개, 고마게, 고등을 채취하며 어촌마을을 제대로 체험하기 좋다. 또한 바다를 따라 조성된 산책길에서 일출, 일몰을 감상하며 산책하기도 좋다.

##### 둘. 유채꽃 포토존

신진항 팻말이 보이는 곳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다. 봄철에는 안흥나래교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다가오는 봄, 신진도를 방문한다면 놓치지 말 것!

# 짠! 짠! 짠! 짠! 바다가 궁금해!

바다에도 맛이 존재한다. 그 맛은 바로 짠맛!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같은 물인데 왜 강물은 짜지 않고 바다만 짠맛이 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다들 주목!



## 바다에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다? 🔎

바다에서 물놀이하다가 바닷물을 맛본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우연히 입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에 다들 “아우 짜!”하며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지 않은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다에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안의 염류물질 때문이다. 염류물질은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바닷물 1kg 기준 35g 정도의 염류물질이 녹아 있다고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짠맛을 많이 내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무려 75%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강한 짠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바닷물을 먹는 건 상관없지만, 식수가 부족하다거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먹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마시면 바닷물의 염도가 체액의 농도보다 더 높아 오히려 우리 몸의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겪게 된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심각하면 탈수 현상까지 초래한다. 이 현상이 우리가 아는 ‘삼투 현상’이다.

## 바다는 대체 얼마나 짠까? 🔎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는 어디일까? 바로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바다 사해 (dead sea)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다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기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반 바닷물보다 5~7배가량 짜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수영하지 않아도 바닷물 위에 둉둥 떠오르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바다는 세계의 바다와 비교했을 때 염분이 낮은 편이다. 특히 서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은데 그 이유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적인 요인이 크다. 대부분의 빗물이나 강물이 서해로 흘러가고, 중국 양쯔강의 물줄기가 서해로 유입되어 염분의 농도를 낮춘다고. 또한, 우리나라 바다의 염분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낮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50%가 여름에 집중된 기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바다마다 염분의 농도는 다르지만, 실제로 녹아 있는 염류 물질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다. 바다의 염분은 증발과 강수로 인한 순수한 물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 달라져 무기 염류 간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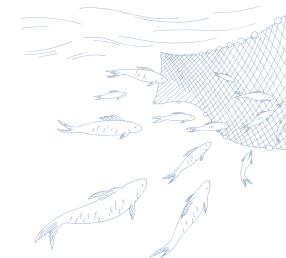
마, 이것이 바로  
부산 수산시장의 클라스다!

부산 자갈치 시장

부산 방문 N회차.  
그런데도 아직 여기를 가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팔 없는 붕어빵을 먹었다거나  
유재석을 만나기 전 조세호와 같은 기분이 아닐까.  
그만큼 맹맹하고 허전하기 그지없다는 소리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올겨울, 부산을 찾았다면  
명소 중의 명소 자갈치시장에 들러보도록.  
부산 수산시장의 클라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 유명하다는  
자갈치시장,  
여기가 거기야!



부산 역사의 중심에  
자갈치시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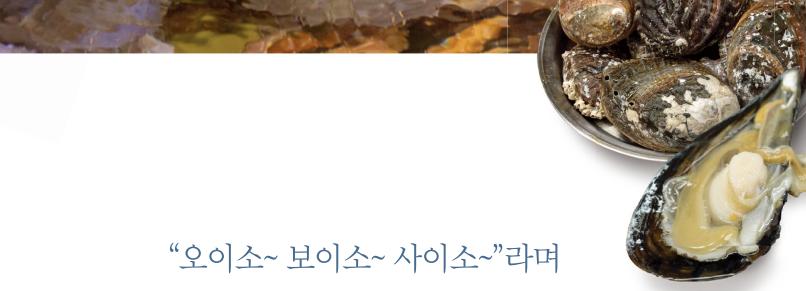
부산 자갈치시장은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자갈치시장이 있는 남포동의 옛 이름은 남쪽의 물가라는 뜻을 지닌 남빈(南濱)이었다. 이곳은 주먹 크기의 굵은 자갈들이 해안가에 깔린 아름다운 어촌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남항이 건설되면서 포구, 항구가 있다는 뜻의 남포(南浦)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자갈치시장이라는 이름도 지역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빈이라 부르던 시절 해안가에 널려 있던 자갈과 어시장에 팔리던 물고기를 의미하는 '차'가 붙어 자갈치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이름에 얹힌 이야기가 있다. 활어만 취급하는 자갈치시장의 특성을 살려 활어로 많이 거래되는 '자갈치'라는 어종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모두 그럴싸해서 믿음이 간다.

해방 이후 남포동이 속해 있는 부산 중구는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과 피란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시 40여 만 명이던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주거지와 일자리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남포동 곳곳에 판잣집을 짓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대부분은 국제시장이나 부평시장 골목 곳곳에 노점 to 열거나 지게꾼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남포동의 해안가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노점에 더 많은 사람이 좌판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갯가 시장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여객선이 정박하는 내항, 인근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들이 모이는 어항의 역할이 뒤섞이면서 복잡해졌다. 게다가 근처에는 가건물로 지은 부산어패류처리장을 중심으로 판자로 세운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부산시는 이 판잣집 가게를 철거하고, 1969년에 인근 노점 상인을 수용해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것이 지금 자갈치시장의 시초다.



## 먹거리만큼이나 풍부한 볼거리!



역사의 풍파를 견뎌온 자갈치시장이 정식 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1972년도부터다. 그때를 기점으로 장사를 이어오다가 1985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타고 만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해 다시 문을 열고 2006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총 7층으로 된 건물에 1층 수산물시장, 2층 동·서 회센터부, 식품부, 건어물부로 나뉘서 사용 중이다. 대부분의 볼거리 먹거리는 1층에 몰려있다. 활어부, 전복부, 선어부, 활장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상인 반, 물고기 반, 관광객 반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더욱이 부산의 명소로 잘 알려진 덕분에 외국인 손님들도 많다. 점포마다 메뉴판의 메뉴를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표기해 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당연히 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지만, 여기만의 별미는 곰장어다. 자갈치 시장의 원조인 판때기 장수들이 널빤지로 만든 좌판에서 곰장어나 삶은 고래 고기를 바로 썰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다른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갈치시장만의 매력이라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며 부산 사투리로 손님들을 불러 세우는 자갈치 아지매들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시장을 돌다 보면 싱싱한 횟감을 썰거나 들어 올리는 상인들의 모습에 저절로 눈길이 간다. 꼭 맛보지 않아도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즐길 거리가 많은 것 또한 우리가 자갈치시장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며  
부산 사투리로 손님들을 불러 세우는  
자갈치 아지매들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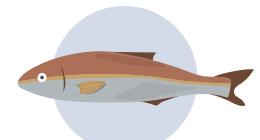


겨울철 자갈치시장의 별미!



먹장어

부산에서는 곰장어 또는 꼼장어로 부른다.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편두통 등에 좋다. 부산에서는 주로 곰장어 볶음과 짬으로 요리해 먹는다고. 자갈치시장의 별미로 꼽힌다.



방어

겨울이 제철인 방어는 영양 덩어리다.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비타민D가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에 좋다. 방어는 특히 회로 먹는 게 인기가 있다. 기름기가 많아 묵은지나 고추냉이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 해녀들의 정성이 깃들어 싱싱함이 살아 있네~!

영도해녀촌



## 그거 알아? 부산 영도에도 해녀가 있다!

해녀 어업은 세계적으로 특별하고 귀한 우리나라만의 해양 문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녀가 제주도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산에도 해녀가 존재한다. 1970년대 초중반, 남편의 경제활동에 따라 많은 해녀가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했고, 부산 영도에 해녀가 정착했다. 이들의 유입에 따라 부산에서도 해녀 어업이 시작되었다. 해녀가 유입된 시기의 부산은 우뭇가사리와 미역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릴 만큼 자원이 풍부했다. 게다가 이를 거래하는 시장도 번성해 제주를 벗어나 육지로 온 해녀들이 정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있다고 전해진다. 부산의 섬이었던 영도도 마찬가지다. 몇몇 해녀들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영도에서도 해녀 어업이 시작됐다. 이들은 산업화 시기 일을 하러 오랫동안 가정을 비운 남편을 대신해 물질을 하며 가장으로서 집안을 꾸려나갔다. 해녀문화전시관이 영도에 자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녀 동상이 세워진 영도 해녀문화전시관에서는 영도 해녀 어업의 역사와 해녀들의 삶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김밥과 해산물을 특급 컬래버레이션

영도해녀촌은 해녀문화전시관 건물 1층에 자리한 식당이다. 약 17명의 해녀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물질을 해서 잡아 올린 해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명게, 소라, 해삼은 물론이거니와 전복과 문어까지 맛볼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해물라면과 김밥이다. 해산물을 파는 곳에서 김밥이라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밥은 영도해녀촌을 인기 반열에 오르게 한 핵심 메뉴와 다름없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곳을 방문해 김밥 위에 성게알을 올려 먹기 시작하면서 이 집의 별미가 되었다. 당시 백종원은 “김밥 맛집이라기보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김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려 왔다”며 영도해녀촌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영도해녀촌의 ‘성게 김밥’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메뉴판에는 성게 김밥이 없다. 성게 한 접시와 김밥을 따로 주문해야 한다. 영도 바다 앞에서 김밥에 성게를 듬뿍 올려 먹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김밥을 맛볼 수 있다. 눈과 입에서 살아있는 바다가 느껴진다.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은색 쟁반에 나오는, 영도해녀촌 한상차림과 바다를 어우러지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암묵적인 룰이 되기도 했다. 옮겨울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다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영도해녀촌에 들러볼까. 세상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바다 밥상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테다. ●

☞ 영도해녀촌 부산 영도구 종리남로 2-35



#바다내음

#가득한

#부산 영도의

#별미

#영도해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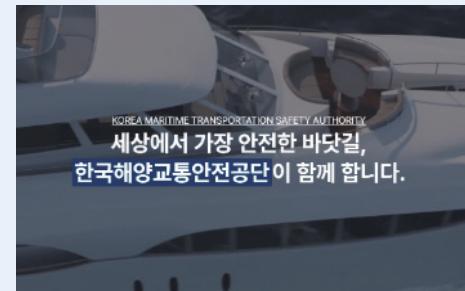
# KOMSA NEWS

## | 제135 금성호 침몰사고 대응 해양사고 대책본부 구성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월 8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방 약 12 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선망어선 제135 금성호 침몰사고에 따라 해양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조과정과 사고원인조사 과정에서 선박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필요시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준석 이사장은 해양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지사와 운항관리센터에 소형 선박 안전진단, 연안 여객선 점검 등 해양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 어선원 안전관리 경력직 등 31명 신규채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4년 제5차 신규 직원 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채용은 총 31명 규모로, 공단의 '24년 신규사업인 '어선원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해, '친환경 인증업무' 등을 수행할 핵심인재를 모집했다. 특히,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직 전문 분야(회계, 전산 등) 채용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어선원 안전관리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전관리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채용을 포함했다.

## | 2024 앱 어워드 코리아 2년 연속 '대상' 수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주)디지털조선일보 주관 '앱 어워드 코리아' 올해의 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1일 출시한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앱은 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사고 현황 ▲여객선 교통정보 ▲사고위험 알리미 ▲교통 혼잡 정보 ▲우리 선박 관리 등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동력수상레저기구 원격검사 시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원격방식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이하 '원격검사')를 실시했다. 원격검사는 선박검사원이 레저기구검사에 입회하지 않고 사진, 서면 자료, 화상통화, 동영상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수행하는 검사로, 입회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단은 원격검사 시행으로 검사원과 사업자 간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해지고, 기상악화 시 신속한 검사를 통해 고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종 본사 안내

### 044) 330-

이사장	T. 2200~1	F. 2352
기획조정실	T. 2210	F. 2353
안전관리실	T. 2560	F. 2653
경영본부장	T. 2203	F. 2352
인재경영실	T. 2220	F. 2354
성과혁신실	T. 2410	F. 2466
운영지원실	T. 2230	F. 2357
정보보안실	T. 2500	F. 2355
해양교통본부장	T. 2205	F. 2352
교통정책실	T. 2300	F. 2309
해양안전실	T. 2340	F. 2339
해양환경실	T. 2250	F. 2365
기술연구소장	T. 2550	F. 2352
안전연구실	T. 2450	F. 2461
해양모빌리티실	T. 2556	F. 2366
검사본부장	T. 2204	F. 2352
검사관리실	T. 2260	F. 2358
검사기준실	T. 2270	F. 2359
미래사업실	T. 2560	F. 2359
운항부부장	T. 2206	F. 2352
운항정책실	T. 2381	F. 2379
운항상황센터	T. 2670	F. 2389
감사실	T. 2320	F. 2364
노동조합	T. 2360	F. 2367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1~2277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 지사 안내

### 인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 인천운항관리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 인천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T. 674-5447~8

F. 674-5449

### 세종본사(044)

T. 330-2380 F. 330-2357

### 충주지사(044)

T. 330-2285 F. 330-2363

###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 보령운항관리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 군산지사(063)

T. 452-817~8 F. 452-8189

### 군산운항관리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1-6145

### 목포운항관리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 목포사고조사센터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T. 654-5262~3 F. 654-5265

### 여수지사(061)

T. 662-9713~8 F. 662-9719

### 제주지사(064)

T. 554-1474, 1480

F. 554-0069

### 완도운항관리센터(061)

T. 555-4023~8 F. 555-4029

###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 고흥운항관리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 서울출장소(02)

T. 2671-7838~9 F. 2671-7841

### 속초출장소(033)

T. 635-5394 F. 631-6002

### 동해지사(033)

T. 535-8091, 8093 F. 535-8094

### 동해운항관리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 포항지사(054)

T. 246-5394~5 F. 246-5396

### 포항운항관리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 부산지사(051)

T. 638-6221~3 F. 638-6226

### 부산운항관리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 부산사고조사센터

## 본사로 오시는 길



올겨울에도  
**<해안선> 구독하면!**

# 띵동! 선물이 도착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지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  
(※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 ② 우측 상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 ③ 개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 ④ 구독 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 참여 기간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해안선>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계간으로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 안전한 바다! MTIS가 함께합니다.



한 눈에 알아보는  
해양교통 안전정보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분석



**MTIS**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mtis.komsa.or.kr](http://mtis.komsa.or.kr)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설계기술정보



표준설계도서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



국민  
교통 편의



선체적  
안전관리



해양사고  
종합정보

MTIS 바로가기!

Web



웹사이트

APP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MTIS 모바일 앱 출시

모바일에서도  
**MTIS**를  
사용해 보세요

